

LLDPE, “500달러도 위험하다!”

FE Asia 500-510달러로 40달러 폭락 … 생산기업 재고가 문제

LLDPE 가격은 CFR FE Asia 기준 톤당 500-510달러로 40달러 폭락했다.

아시아 LLDPE 시장은 수요부족에 재고 급증으로 초유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면 6월말에는 500달러대가 무너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LLDPE 생산기업들이 3-4월 에틸렌 공급부족을 틈타 생산량을 확대한 상태에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판매량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의 일부 PE 생산기업들은 PE를 생산해 판매하기보다는 에틸렌을 판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 에틸렌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가공기업들과 PE 유통기업들이 LLDPE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해 구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LLDPE 구매자들도 1-2개월 전 구매물량을 현재 유통시키고 있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 신규거래에 나설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는 7월 LLDPE 거래물량 100-500톤 가격으로 CFR China/SE Asia 톤당 500-510달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에틸렌 가격마저 CFR Taiwan/SE Asia 톤당 385달러로 45달러 폭락함으로써 LLDPE 가격회복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LLDPE 가격은 5월초 CFR FE Asia 톤당 620-630달러로 정점을 형성한 뒤 5월10일 610달러, 5월17일 580달러로 떨어졌고, 5월말 575달러에서 6월7일 545달러, 6월14일 505달러로 6월 들어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아시아 LDPE 가격도 CFR FE Asia 톤당 570-580달러로 톤당 평균 20달러 하락했다.

유럽의 LLDPE 가격은 FD NWE 기준 톤당 785-803달러로 46달러 폭락했다. 유럽시장은 DSM이 Priolo 플랜트 가동을 중단하는 등 수급타이트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시아 공급물량이 톤당 520달러에 유입됨에 따라 폭락세로 돌아섰다.

유럽은 LDPE 가격도 550-600달러로 40달러 폭락해 PE 시장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6/ 18>